

韓國의 對蘇·東歐關係

—韓國의 共產圈研究를 中心으로*—

崔 鍾 起**

目 次	
I. 序 論	IV. 韓國에서의 對蘇·東歐研究現況
II. 南·北韓간의 主要爭點	V. 結 語
III. 韓國의 對蘇·東歐關係	

I. 序 論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으로 韓半島는 日本의 壓制로 부터 解放, 國土는 北緯 38度線의 以北은 蘇聯軍이, 以南은 美軍이 各各 占領하여, 駐屯軍 政府가 聲援하는 異質의인 政權이 南·北韓에 各各 樹立되어, 國土는 分斷된 채, 1950年 6月 25日 北韓의 南侵에 의한 南北間의 戰爭이란 悲劇을 겪었고, 1953年 7月 23日 人爲的인 休戰으로 인하여, 休戰線에는 계속 南·北韓의 百萬 以上의 大軍이 對峙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韓半島의 現實이다.

1948年 國際聯合의 聲援下에 南韓에는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된 以來, 自由民主主義를 標榜하여 反共을 國是로 하는 關係로 蘇聯·東歐등 共產圈과의 交流는 危險視하여 왔고, 따라서 이 分野의 研究는 더욱 씩들 素地조차 없었다.

특히 韓國動亂으로 韓國國民은 共產主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蘇聯·東歐에 관한 關心조차 없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70年에 접어들어 國際環境의 變化에 適應할 必要가 있다고 判斷한 朴正熙 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¹⁾을 國內·外에 闡明, 南·北韓 同時 國際聯合加入,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에게 門戶開放을 촉구함으로써,

* 本論은 1982年 9月 9日~11日 日本北海道大學百年記念館에서 開催된 日本蘇聯·東歐學會 第11回 總會에서, 主題論文을 發表한 것이다.

座長은 中澤精次郎 教授(慶應大), 討論者는 高瀬 淨教授(高崎經大) 특히, 日本의 學者들에게 韓半島關係에 關하여, 보다 關心을 갖게 하기 위하여, 論文內容외에도 南·北韓關係의 여러 面을 說明하였고 日本學者들의 많은 質問등이 있었다. 이것을 契機로 하여, 同學會에서는 1983年度부터 研究:發表會등도 들들이 韓國에 와서 갖도록 原則的인 合意를 보고, 이 分野研究에 兩國學者가 보다 緊密한 접촉과 交流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이 11 總會에는 筆者외에도 李昶雨(嶺南大) 尹河瀾(仁荷大) 兩教授가 參席하여 各會議에서의 討論에 參加하여, 韓國의 立場을 밝히는데 힘들을 기울이었다.

** 서울: 行政大學院 教授.

(1) 동아일보, 1973年 6月 23日, 한국일보, 1973年 6月 24日.

對蘇·東歐等 共產圈과의 交流등을 希望한다는 뜻을 밝히었다.

이것은 蘇聯·東歐등에 대해 담을 쌓아온 韓國外交의 一大 轉換이라 하겠다. 그러나 大韓民國의 이러한 政策宣言에 있어서도 對蘇·東歐關係에 있어서 若干의 進展은 있었으나, 광목할만한 進展은 期持될 수 없었고, 그것은 北韓의 對蘇·東歐關係라는 函數關係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韓國의 對蘇·東歐關係의 進展은 먼저 南·北韓關係의 關係改善 즉 南·北對話의 촉진만이 韓國의 對蘇·東歐등 共產國家와의 關係를 好轉시키는 捷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本稿에서 南·北韓關係 특히 南北韓의 主張을 比較하고, 韓國의 對蘇·東歐關係研究 現況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南·北韓間의 主要爭點

南·北韓間의 主要爭點은 民族의 宿願인 統一問題를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다. 韓半島의 統一의 當否性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²⁾

첫째는 民族史의 要請이다. 南과 北의 相異한 思想과 體制로 말미암아 歲月이 흐를수록 民族의 異質化는 深化되어 永久分斷의 憂慮가 있다.

둘째는 分斷으로 인한 人道的 苦痛을 解消해야 한다. 分斷으로 一千萬의 離散家族이 發生, 서로 生死 조차 모르고 있다.

셋째, 分斷으로 南·北韓이 必要以上의 軍隊등 國防費라는 非生産의 負擔을 國民이 지나치게 걸머지고 있다. 統一이 되므로서 富強한 民族國家를 이루어 世界先進國家 隊列에 끼어야 한다.

네째로, 韓國民族을 戰爭의 恐怖와 不安으로 부터 解放시키기 위해 統一은 되어야 한다.

다섯째, 韓半島의 統一은 東北亞와 世界平和의 維持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펼쳐진 歷史의 敎訓에 비추어 볼 때, 南·北韓 雙方중 어느 一方이 自己의 思想, 理念, 制度를 앞세워 自己가 願하는 方式의 統一만을 고집하는 統一은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특히 韓半島統一問題에는 韓半島를 에워싼 強大國들의 利害關係가 얽혀있다. 따라서 統一問題는 韓民族 內部的 問題이면서도 國際的인 統一의 環境을 度外視할 수 없는 것이다.

大韓民國은 1954年 以來 美國과 軍事同盟關係에 있는 反面, 北韓은 1961年 以來 蘇聯 및 中共과 各行 軍事同盟關係에 있다.

여기서 南·北韓의 統一方案을 간단히 比較하여 본다.

1. 韓半島의 統一方案

1982年 11月 22日 全斗煥 大統領은 새해 國政演說을 통해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을 제

(2)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統一對話」, 1982年 11~12面.

시하였다.³⁾ 同案은 ① 統一憲法草案을 위한 民族統一協議會議 構成을 제의하고, 自由로운 國民投票로 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總選實施와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構成, 統一國家를 完成한다는 것이다.

統一憲法制定作業을 추진하기 위해 南北韓間에 信賴를 造成하고, 民族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統一을 沮害하는 要因을 除去하는 作業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 체결을 제의하고, 高位級代表間의 豫備會談을 提議했다.

北韓은 韓國에서 4.19學生義舉로 自由黨政權이 무너지고 大韓民國政局이 不安定하던 時期인 1960年 8月 14日 「過度的 統一方案」으로 「聯邦制」를 처음 提示하였다. 그후 北韓은 1973年 6月 23日 大韓民國이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發表한 같은 날 午後에 「祖國統一 5大綱領」⁴⁾의 한 構成部分으로 이를 再確認하면서 「聯邦制」를 主張, 1980年 10月 勞動黨 6次大會에서 金日成은 이른 바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立方案」에서 「統一까지의 過度體制」로서의 「聯邦制」가 아니라 「完成된 統一國家의 國家形態」로서의 「聯邦制」라고 主張하였다.

北韓은 그들의 統一方案이나 對南提議를 할 경우, 언제나 大韓民國이 받아들일 수 없는 一方的인 前提條件(先決條件)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같은 前提條件들은 時期的 狀況에 따라 主張의 順序나 表現의 差異는 있으나 그 內容에 있어서는 큰 差異가 없다. 北韓의 主張의 先決條件은, ① 大韓民國의 反共法과 國家保案法등을 廢止, 社會의 民主化가 實現되어야 한다. ② 統一革命黨(北韓에 의해 造作한 것으로 北韓에 所在)등과 大韓民國內의 모든 政黨·社會團體 및 個別人士들의 容共活動의 合法化, ③ 現 大韓民國政權이 소위 「民主政權」으로 交替되어야 한다. ④ 大韓民國이 除外된 가운데, 美國과 北韓間의 休戰協定을 代替할 平和協定이 체결되고, 駐韓美軍이 撤收되어야 한다. ⑤ 美國이 「分裂主義의 兩個朝鮮造作策功」을 沮止시키며, 大韓民國에 대한 「美國의 內政干涉」을 中止해야 한다고 主張, 大韓民國政府를 對話의 相對로 받아들일 것을 拒否하고 있다.

北韓은 國際社會를 향해서는 「聯邦」에 該當하는 Federation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않고 共存指向的인 國家聯合 즉 Confederation이라는 用語를 사용함으로써 二重宣傳效果를 거두려는 計略을 벌이고 있다.⁵⁾ 그들이 使用하고 있는 「自主」라는 用語는 駐韓美軍撤收 與件造成이라는 意味로 使用되고, 「合作」은 共產化를 위한 統一戰線形成의 意味로, 「民族」은 「프

(3) 中央일보, 1982年 1月 12日, 한국일보, 1982年 1月 13日.

(4) 노상신문, 1973年 6月 24日, 北韓의 統一 5大綱領.

① 南北韓의 軍事的 對峙狀態와 緊張狀態의 解消와 南韓으로부터의 美軍의 撤收.

② 南·北間의 政治·軍事·外交·經濟·文化의 各分野의 合作·交流實現.

③ 南·北間의 「大民族會議」의 召集, 統一問題를 協議.

④ 「大民族會議」의 召集과 南·北 聯邦制의 主施, 國號는 「高麗聯邦民主共和國」으로 한다.

⑤ 國際聯合에는 南·北 各各 加入하여서는 안된다.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서 한 國家로서 들어 간다.

(5) 前: 叢書, 「南北對決」, 29面.

로레타리아 階級集團의 意味로, 「民主」는 人民民主主義 즉 共產獨裁의 意味로 使用하고 있다. 그리고 「聯邦」 역시 容共 또는 聯共政權의 樹立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내놓은 「聯邦制」方案의 「前提條件」說明에서 이미 明白하게 드러난바와 같다.

北韓이 聯邦制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았으나, 모두 當時의 大韓民國의 國內政局이 不安定한 時期였다는 점에서 一致하고 있다. 北韓의 「聯邦制」方案은 그 前提條件으로 大韓民國의 共產化를 要求하고 있다.

大韓民國의 統一方案은 「統一憲法」의 制定과 總選舉에 의한 統一達成을 提示하고 이를 위한 南·北韓關係의 正常化(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를 提議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의 「聯邦制」方案은 이른바 前提條件의 관철에 의한 大韓民國의 共產化와 이미 共產化된 北韓과의 「合作」에 의한 赤化統一이라는 二段階 統一論을 固守하고 있으며, 聯邦機構를 云謂하면서, 그 達成에 있어서는 大韓民國의 特定政黨·人士는 排除되어야 한다는 등 一切의 民主的 節次와 方法을 否定, 外面하고 있다.

北韓側은 1982年 1月 26日 北韓의 副主席兼 「祖國統一平和委員會」委員長인 金一名義의 談話를 發表⁽⁶⁾ 「南韓의 現執權者가 내놓은 總選舉案은 現實을 外面한 한 갖 政治學上的 圖式에 불과한 것이며, 南·北韓基本關係에 관한 協商은 分裂의 現實을 法的으로 固定化하여 永久히 두 國家, 두 個 民族으로 갈라져 살자는 것」이라고 公式的 拒否反應을 보이고 있다. 특히 北韓側은 同談話에서 「眞正으로 統一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려면, 우리나라에 存在하는 統一의 基本障碍를 除去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① 駐韓美軍撤收, ② 大韓民國社會의 「民主」實現, ③ 反共政策포기 등의 「前提條件」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關係는 祖國의 統一이라는 民族의 宿願課題를 놓고 相反되는 主張이 되풀이 되고 있다. 北韓은 韓半島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論議하는 過程에서 大韓民國을 排除하고 韓日休戰協定을 美國과의 平和協定 締結을 苛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聯邦制」를 云謂하면서, 그 相對方을 否認하는 主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1970年代初, 「닉슨」中共訪問동 소위 「닉슨·쇼크」로 南·北韓當局은 南·北韓對話, 7·4 共同聲明 등 얼어붙은 對話를 再開, 相互 비방을 삼가하는 듯 하였으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對話가 中斷되고, 南·北韓間의 緊張狀態는 계속 되고, 그것이 韓國의 對蘇·對東歐關係의 緩和 「무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III. 韓國의 對蘇·東歐關係

大韓民國은 反共을 國是로 내걸고 있던 關係로 對共產圈關係는 門戶가 굳게 닫힌채, 交流의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70年 以後 「닉슨·독트린」에 의해 韓國으로 부터 많은 數의 美軍이 撤收하고,

(6) 노동신문, 1982年 1月 27日.

다시 1972年 봄에 「닉슨」이 中共을 訪問하자, 美國依存 一邊倒의 外交政策을 遂行하던 韓國이 큰 衝擊을 받은 後, 自主外交의 路線을 취하여 蘇聯을 非敵性國家로 規定한 以後는 蘇聯은 韓國에 대해 어느 程度 누그러지는 조짐을 보였다.

1972年 6月 25日 「이즈베스지아」紙는 南北赤十字社에 의한 韓國統一摸索에 關係 言及하면서 「韓國의 民主平和統一은 우선 美軍의 撤收가 先行되어야만 한다」는 式으로 強調하면서 北韓의 主張을 두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論調도 옛날에 비해 훨씬 온건한 말투로 韓國政府를 지적하여 「서울政權」 또는 南韓이라고 號稱하였다.

그때까지 韓國人的 蘇聯入國을 고의적으로 拒絶해오던 蘇聯이 韓國의 연극인 유덕현氏를 비롯한 全經僱人士들, 各種 國際會議에 參席한 韓國學者들에게 査證을 發給하였고, 1979年 8月의 第11次世界政治學者大會가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을 때는 15名의 教授들은 勿論 外務部公職者의 學者 1名등 總 16名의 韓國學者들과 在美韓國人 學者등 合하여 20名의 韓國學者들이 蘇聯을 訪問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韓國人學者의 訪蘇를 反對한 北韓은 「모스크바」世界政治學者大會 參席을 拒否하였다.

蘇聯이 韓國人的 蘇聯入國 및 旅行禁止와 自國人的 韓國旅行을 禁止하고 있는 政策을 써 온 것은 主로 北韓의 政治的인 壓力 및 입김때문인 것이다.

蘇聯·東歐共產圈國民이 韓國에 入國한 現況(1972年 11月 부터 1982年 5月 4日 現在)을 보면, 總 3,593各, 그 중 船員이 3,225名으로 首位를 占하였고, 그중 「유고슬라비아」人이

〈表 1〉 蘇聯·東歐共產圈國民入國者現況 (1972.1.1~1982.4)

國籍別	計	유 고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蘇聯	알바니아	東獨
總計	3,593	3,157	218	45	15	147	8	2	1	2 ↓ (八二年)
運動競技	6	4	—	1	—	1	—	—	—	—
公演	46	28	3	8	1	6	—	—	—	—
國際會議	20	10	4	4	1	—	1	—	—	—
通過	20	15	4	—	—	—	1	—	—	—
訪問	9	8	—	—	—	—	1	—	—	—
商用	82	71	1	6	1	1	2	—	—	—
視察	12	5	5	—	—	1	1	—	—	—
公用	28	14	9	1	2	1	—	1	—	—
家族	8	1	5	—	2	—	—	—	—	—
留學	5	4	1	—	—	—	—	—	—	—
觀光	60	40	7	5	2	3	1	1	1	—
技術指導	39	19	—	20	—	—	—	—	—	—
宗教社會事業	4	3	1	—	—	—	—	—	—	—
協定遂行	7	7	—	—	—	—	—	—	—	—
藝術學術指導	22	18	2	—	—	1	1	—	—	—
船員	3,225	2,910	176	—	6	133	—	—	—	—

〈表 2〉 韓國國民의 蘇聯·東歐圈出國現況

(1972. 1. 1~1982. 5. 4)

職業目的別		國籍別								
		計	유 고	폴랜드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蘇聯	알바니아
總計		477	80	31	23	102	9	95	137	—
出國者職業別	公務員	21	7	1	2	2	—	5	4	—
	國會議員	16	—	—	—	5	6	—	4	1
	軍人	3	—	—	—	—	3	—	—	—
	言論人	18	6	—	1	2	—	3	6	—
	宗教文化體育	281	49	15	14	57	3	69	74	—
	學生·教授	45	4	6	—	7	2	3	23	—
	商人	18	4	3	—	—	3	2	—	6
	技術者	30	—	—	1	18	—	—	—	11
기타	35	—	6	—	—	4	2	11	12	
出國目的別	公用	17	5	1	—	1	—	3	3	—
	外交	30	3	—	7	6	—	9	5	—
	取材	17	6	—	1	1	—	3	6	—
	研究訓練	35	5	—	1	—	3	—	26	—
	宗教社會事業	40	16	21	—	—	1	—	2	—
	運動演藝	298	41	—	14	90	2	69	82	—
	就業	11	—	—	—	—	—	—	11	—
	商用	8	4	3	—	—	1	—	—	—
其他	25	—	6	—	4	2	11	2	—	

〔出處〕筆者가 法務部 出入國管理所에서 직접 集計한 것임.

3,157名, 「폴랜드」人 218名, 蘇聯人이 2名등이다⁽⁷⁾(表 1 參照).

또한 韓國人의 蘇聯등 東歐共產國家에 旅行한 者는 總 477名으로 가장 많은 數字를 占하고 있는 것은 蘇聯으로 137名, 그 다음이 「불가리아」 102名, 「루마니아」 95名, 「유고슬라비아」 80名, 「폴랜드」 31名, 「체코슬로바키아」 23名, 「헝가리」 9名등이고, 이들 중 宗教·文化·體育分野人士가 281名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教授·學生이 45名이고, 技術者 30名의 順이다(表 2 參照).

이와같이 蘇聯·東歐關係의 人的交流는 每年 若干씩 增加추세에 있었으나,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事態以後는 매우 抵調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國際會議次 參席하는 韓國人들에게는 入國査問을 發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象이다.

이와같은 蘇聯·共產圈과의 人的交流를 증진시키는 것은, 將次的 關係改善을 위해, 점진적인 整地作業의 일환으로서 바람직 슌어는 것이다.

(7) 1982年 10月 5日, 서울서 開催된 亞細亞通信機構技術委員會 會議에, TASS通信員 3名이 參加하였다 蘇聯人은 統計 5名이 訪韓한 것으로 됨. 그리고 1982年 들어와서 東獨人도 2名 訪韓한 바 있다. 다만 韓國人의 東獨旅行關係는 目的地를 東獨으로 한 것은 記錄上 한 名도 없는 것이다

IV. 韓國에서의 對蘇·東歐研究現況

第2次 世界大戰과 더불어 分斷된 國土와 冷戰의 前哨基地화된 韓半島는 南·北 對決로 共產主義에 대한 贊反으로 갈라지고, 南韓은 反共을 國是로 하는 關係上, 이들 地域에 대한 研究의 關心을 갖는 것조차 禁忌가 되다시피 되었다.

그러나 外國留學 또는 外國學問의 도입을 통하여 發展된 地域研究, 蘇聯, 中共·東歐 研究의 國際的 傾向에 同化하려는 努力이 펼쳐졌다. 韓國에서 政治的 制約이 점차 완화되면서 共產圈研究가 점차 싹트기 시작하였다.

1973年 6月 23日 故 朴正熙大統領에 의한 平和外交宣言은 이 分野研究에 대한 一大 轉換期라 할 수 있다. 韓國에서의 蘇聯·東歐등 共產圈研究가 지닌 특수성은 무엇보다 韓國이 分斷國이며 共產圈에 속한 全體主義體制와 긴장상태속에서 대처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다.

우리의 共產圈研究를 위하여 적절한 韓國의 視角을 모색하기 위하여서는, 共產圈研究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程度의 差異는 있더라도 누구나 지녔으리라고 짐작되는 偏見을 各自 억누르고 綜合的이며 創造的인 새 研究의 視角은 함께 만들어 가도록 協力해야 될 것이다.⁽⁸⁾

共產圈研究의 또 하나의 중요한 問題는 政策과 研究의 關係를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다. 즉 共產圈에 대한 國家의 政策과 學問的 研究의 關係는 어떠한 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한 原論的 대답은 研究의 結果가 政策을 決定하는데 影響을 주고 참고가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미 決定된 政策이 研究의 方向이나 內容을 制約하는 것은 피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韓國에서의 共產圈研究가 오래동안 不振하였던 가장 큰 理由는 바로 위와같은 原論的 이치가 송두리채 無視되어 왔다는 것이다. 오늘날 共產圈研究에 대한 보다 구연성 있게 분위기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原論的 이치의 중요성을 理解할 수 있는 狀況의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⁹⁾

韓國에서의 蘇聯·東歐圈研究가 지닌 視角問題와 關聯하여 지적하여야 될 것은 資料의 問題이다. 利用可能한 資料가 制限되어 있는 狀況하에서는 資料의 選別의 餘지가 적으며, 따라서 資料 자체가 가지는 性格으로 인해 資料를 利用하는 研究者의 視角이 자연히 많은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

韓國에서의 蘇聯研究는 그 時期別로 보아 ① 帝政末 부터 2次 世界大戰까지, ② 韓國動亂 終了부터 1960年代末까지, ③ 1970年代부터 現今까지로 분류될 수 있다.⁽¹⁰⁾

①의 期間은 주로 「러시아」文學을 紹介하는 정도이고, ②의 期間은 「러시아」語科教育이

(8) 李洪九, “共產圈研究의 視角과 問題點”, 共產圈研究現況, 法文社, 1981年, p.17.

(9) 上掲論文, p.21.

(10) 曹圭化, “蘇聯研究”, 前掲書, p.115.

大學에서 실시되어, 語學訓練에 치중하는 時期이다. ③의 時期인 1970年代는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의 關係改善을 꾀하려는 것으로 非敵性國家에 대한 門戶開放을 표방하는 時期이다 蘇聯事情에 관한 研究가 시도되고, 碩士課程이 생기고, 蘇聯研究所가 規模는 작으나, 各種 國際分野研究所와 함께 設置되었다.

蘇聯研究의 必要性이 점차로 증대하여 감에 따라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많으나 가장 중요한 몇가지 점으로 압축될 수 있다.⁽¹¹⁾

첫째로, 專門家養成을 위한 教育制度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大學教育制度로서는 거의 不可能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 語科에서는 言語만 講義하고 政治學科에서는 政治學만을 講義하여 서로가 各己의 專門知識만을 주입시킨다면 相互 不可避한 知識이 유리되어 完全한 專門家を 양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大學에서는 蘇聯地域을 研究하기 위한 「슬라브」研究學科와 같은 새로운 科를 新設하고 多數의 學生을 入學시켜 言語, 政治經濟, 歷史, 社會學 專門家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러시아」語 教育의 強化가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러시아」語 教育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一 個校 정도이고,⁽¹²⁾ 國立서울大學에서도 「러시아」語 講座가 개설되어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셋째로, 研究資料가 不足하다. 이 分野에 대한 關心도가 낮았고, 財政의 빈곤과 專門圖書館이 全無하다는 것이다.⁽¹³⁾

넷째는, 國際的인 學者間的 接觸이 要望되고 있다. 世界的인 研究추세에 늘 접촉할 수 있는 機會가 부여되어야하나, 늘 뒤떨어진 事項을 研究하게 되는 것이다. 外國서 개최되는 學會, 學術會議등에 가능한 限 參席하여, 새로운 研究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機會와 또한 外國의 著名學者의 招請에 의해, 落後된 우리의 蘇聯研究에 새로운 刺戟劑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

다섯째, 蘇聯專門家の 就業問題의 解決이 앞서야 한다. 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듯이 蘇聯問題專門家の 養成도 그 수요가 확대되어야만 可能하다. 그러나, 이 分野의 專門家도 적으나, 專門的으로 그 分野를 研究한다고 하여도 就業할 職場이 적다는 데서, 애써 힘든 分野의 공부를 하여야 할 意欲을 갖도록 하는 就業의 門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東歐圈研究는 地理的으로 東歐圈이 韓國과 멀고, 東歐圈研究를 자극할 現實的, 政策的 必要性이 크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11) 上揭論文, pp.125-126.

(12) 韓國外大 및 高大.

(13) 적어도 日本의 경우만 하여도 北海道大學附設 「스라브」 研究所는 蘇聯東歐關係專門圖書館을 두어 圖書 8萬卷과 專門研究家を 두고, 또한 養成을 위해, 政府에서 莫大한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 美國의 Hoover研究所는 200餘萬卷의 專門圖書館을 두고 專門研究員을 두고 있다.

東·西獨關係가 우리의 關心내에 있었으며, 70年代初 東·西獨의 東方政策이 現實化되면서, 이에 대한 關心이 점증하여, 東西와의 交易을 겨냥한 經濟的 必要性和 東歐를 韓國과의 關係에서 非敵性化 내지 中立化, 가능하면 友好化까지 시켜보려는 우리側의 政治外交의 욕구에 기인한다.

이러한 現實에서 政策的 關心은 學問的 關心을 창출했고, 이 方面에 대한 조직적, 계속적 研究에 바탕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東歐研究는 아직도 그 萌芽期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東歐研究가 專門의 관심을 갖고 있는 一團의 學者들에 의해 體系的, 組織的, 繼續的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必要에 의하여 이 方面에 대한 非專門的, 非組織的으로 또는 間歇的으로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東歐에 대한 學問的 관심이 성숙될 수 없었고, 자연 東歐研究學者라고 指稱될 수 있는 一團의 學者群이 형성될 수 없었다. 東歐 연구의 수준 또한 대체로 試論的 水準을 넘어서지 못했고, 소개나 해설에 그쳤다.⁽¹⁴⁾

東歐에 대한 관심은 學者에 따라 다양하며, 따라서 접근방법 또한 異질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여기서는 주로 政治學的 關心을 기초로 하여 東歐研究의 方法論的 論點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繼續的이기는 하나 지난 20여年間 輸出된 東歐의 自由化過程은 共產主義體制의 變動을 연구하는 學者들의 관심에 불을 붙이기에 족했다. 東歐를 蘇聯의 衛星國家로 規定하고 이를 體主義 模型에 의하여 靜態的으로 分析하려는 傳統的視角은 이미 그 說明能力의 한계에 이른지 오래다. 또한 東歐의 自由化가 단순한 「크레플린」의 脫「스탈린」化(destalinization) 政策의 반응이라는 편협한 시점에서 해명된 단계도 지나간 느낌이다.

대체로 西歐學者들에 의한 東歐自由化에 대한 초기연구도 처음에는 주로 時論的 경향을 띠었거나 歷史文化論的 接近方法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個別記述的 研究(monographic study)의 경우, 이는 주로 「헝가리」, 「폴란드」, 「체코슬라바키아」에 집중되었고 또 特例로서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관심과 西獨學者에 의한 東獨研究가 비교적 눈에 띈었다.⁽¹⁵⁾

東歐研究는 韓國에서는 아직 그 초창기에 놓여 있으며, 關心이나 研究水準에 있어서 크게 미흡하는 상황이다. 이들 研究는 대체로 英·獨語를 매개로 한 知識傳達의 수준이며, 이 方向에 대한 既存知識의 축적이 全無할 뿐더러, 知的 下部構造의 취약성 때문에 學問的 成熟도가 낮고 특히 方法論에 대한 省察의 機會는 全無하다.

多幸히 1978년부터 文敎部에서 4個大學에 대한 共產圈研究支援費가 支給되어, 이제 初步的인 研究의 整地作業이 進行中에 있다.⁽¹⁶⁾

(14) 安:奎永, “東歐研究”, 前掲書, p.150.

(15) 上:奎論文, p.154.

(16)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 延世大東西問題研究所 高大, 亞細亞問題研究 및 外大蘇聯問題研究所에

〈表 3〉 解放以後 蘇聯關係碩士・博士學位 論文數

(1951~1982. 2. 28)

內容別	學位別		博 士					碩 士				
	年度別		51~60	61~70	71~80	81~82. 2	計	51~60	61~70	71~81	81~82. 8	計
韓國과 蘇 聯					1			1	2	5		8
蘇聯과 東 七 亞								2	5			7
4強國(美・蘇・中・日)									7	4		11
東 歐 區										3	1	4
其 他				4			4	1	9	13	4	57
計					5		5	2	20	30	5	57

[出處] 錫 頁, “共產主義 및 共產圈研究概要”, 前掲書, p. 71, 77-78, 參照. 1980年以後는 筆者가 調査 集計한 것임.

東歐圈研究에 관한 問題點은 蘇聯研究의 問題點과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再論은 省略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蘇聯關係碩士・博士學位論文을 提出한 사람은 博士 5篇, 碩士 57篇이 있다(表 3 參照).

V. 結 語

韓國의 對蘇・對東歐關係는 恒常 南・北韓關係와 函數關係에 있으며, 大韓民國은 北韓을 비롯한 共産圈과의 門戶開放政策下에 平和的인 共存을 모색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大韓民國을 國際社會에서 孤立化시키고, 南韓을 赤化시키기 위한 機會만을 노리고 있는 現實下에 있다.

駐韓美軍은 이러한 北韓의 南侵野慾을 抑制하는 原動力이 되어 있다. 主權國家로서 外國軍의 駐留를 바라는 國家는 國際社會에는 없다고 생각되나, 韓半島는 南・北對決의 緊張關係가 계속하여 힘의 均衡이 美軍의 駐屯에 의해 유지되는 現狀에서는 美軍의 駐屯에 의한 戰爭의 未終防止가 次善의 方策으로서 分解되어 있는 것이다.⁽¹⁷⁾

오늘날 韓國이 蘇聯・東歐와의 交流를 증대하려고 하는 努力은, 늘 北韓의 沮害를 받고 있는 實情이 있다. 특히 蘇聯으로서는 中・蘇紛爭의 가운데서 北韓을 회유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고, 또 北韓은 中・蘇兩國 속에서 「게임・플레이」(game play)의 位置에 있으므로, 韓國과 蘇聯・東歐關係는 꽤 어려운 外交問題가 되어 있다.

北韓은 中・蘇 等距離外交를 마음속으로 두고 있었는데, 1982年 9月 以後 中・蘇和解로

各 大學別로 5,000萬원의 研究費가 5個年間 支援되도록 策定되었다.

(17) 崔鍾 呂, “駐韓美地上軍 撤收에 관한 研究, 北韓側의 反應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國際問題研究所 論文集 第 7 號 1982年 pp. 307-325.

向하여지는 조짐은⁽¹⁸⁾, 北韓의 對外政策에도 轉換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金日成은 82年 9月 15日~25日 中共을 訪問한 바 있다. 北韓은 經濟問題등으로 西方側과의 交流擴大를 시도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¹⁹⁾

또한 1982年 後半期에 접어들어, 10月 5日 서울시 開催된 아세아·太平洋通信社機構(OANA) 第3次 技術委員會 會議에 蘇聯의 「타스」 通信社에서 3名の 會員이 參加하였다. 韓國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 蘇聯에서 準當局者인 國營通信社員이 參加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며, 交流擴大에의 움직임이 가라키는 것으로 注目된다.⁽²⁰⁾

韓國에 있어서 蘇聯·東歐關係研究는 지금 그 關心이 若干 높아는 지고 있으나, 아직 시작한 段階에 지나지 않는다. 幼兒的인 段階에 있는 同分野의 研究를 위한 研究費支援, 專門家養成 資料의 確保問題, 研究에 대한 「인센티브」 問題와, 難題가 蓄積되어 있다. 學術面을 通하여서의 國際的交流의 증대민이 落伍되어 있는 韓國의 蘇聯·東歐圈研究를 國際的水準에 가지 올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 分野의 研究費의 증액은 絶대로 必要不可缺한 일이다.

이 分野의 研究에 先驅者로서 研究하고 있는 先輩들은 指導와 鞭達이 계속 있어야 한다.

韓國은 지금, 蘇聯·東歐研究에 대하여는 刺戟劑가, 學界·政界·政府에도 必要한 것이다. 그러한 見地에서 이 分野에 대한 先驅者的인 先進諸國의 學者들과 자주 접촉하여 學問的인 啓蒙이 될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될 수 있는 財政的인 支援이 必要하며, 爲政者들도 眞眼目에서 이 分野研究의 財政的 支援에 인식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學問的인 面에서의 貢獻과 나아가서, 蘇聯·東歐에의 接近의 途徑으로서의 길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韓國의 對蘇·東歐關係의 증진은 먼저 南·北韓의 對話의 再開가 그 捷徑인 同時에, 1982年度 後半期부터 中·蘇間의 對話再開에 따르는 關係正常化의 움직임이 길어짐에 따라, 韓僑의 對蘇關係에도 점진적인 解氷의 「무드」가 엿보인듯 하며, 對蘇·東歐關係는 어려운 것이나 꾸준한 努力이 수반되므로서 언젠가는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때가 오기前에 이에 대한 準備 다시말하여 이 分野에 관한 研究는 必要한 것이며, 研究에 대한 政策的인 支援이 뒤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이웃으로서 우리의 國際的 地位를 한걸음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18) 1982年 10月 中·蘇間의 和解를 위해 北京서 兩國의 副外務次官會議가 20年만에 再開되어, 버릴 會談을 하고 있다.

(19) 讀眞新聞, 1982年 10月 10日, p.9.

(20) 讀眞新聞, 1982年 10月 12日, p.5.